

# ‘거꾸로 가는’ 광주시 출산정책 논란

###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폐지 육아수당도 절반으로 ‘썩둑’ 순천·보성 등 확대와 대조적 예비맘 “입법 예고도 없이” 반발 시 “부모급여로 지원액은 늘어”

#.내년 3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 김수현(가명·31·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21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내년에 출산하는 임산부는 광주시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9월에 물어봤을 때만 해도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달 들어 갑자기 폐지 결정이 났다고 한다”며 “입법 예고나 제도 기간도 없이, 점진적 축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전면 폐지한다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양육수당도 12개월로 축

소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지역 임산부들 사이에서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데다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전면 폐지를 결정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광주시가 2021년 입법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다. 출생아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21-2022년에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 시비로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제공했다. 더불어 아이가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크는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정부에서 국비로 ‘부모급여’를 주므로, 시비가 들어가는 출생축하금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 광주시 입장이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부모급여와 출생축하금 모두 현금성 지원 제도라 중복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는 부모급여와 육아수당 등 모든 지원금을 합치면 연간 지원 금액 자체는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도 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출생축하금 100만원, 육아수당 48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영아수당 72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2023년에는 육아수당 24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부모급여 1260만원 총 17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국·시·구비 포함) 또한 2022년에는 597억원(출생축하금 460억원, 영아수당 137억원)이었으나 2023년 900억원(출생축하금 299억원, 부모급여 601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도리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산안에는 366억원(출생축하금 343억원, 영아수당 23억원)의 시비가 들어갔으나, 2023년에는 308억원(출생축하금 203억원, 부모급여 105억원)만 투입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자며 지원금을 늘렸더니, 광주시는 도리어 기존 지원금을 줄여 가며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서는 부모급여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추세다.

예컨대 서울시 강남구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 시·군도 앞다퉈 출산 지원금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순천시도 지난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장려금을 300만원→500만원(첫째 자녀 출산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성군도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을 240만원→600만원으로 상향하며, 고흥군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출산 지원금을 720만원→108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비로 들어가는 현금성 지원금을 줄이고 그 예산으로 손자녀돌봄, 입원아동 돌봄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며 “출생축하금 폐지는 지난 9월부터 잠정 결정된 일이었지만, 확정된 건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라 그제서야 결과를 통보해 홍보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치매 증상 80대 노인 실종 고흥경찰 사흘째 수색작업

고흥경찰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알려진 A(여·81)씨가 실종돼 2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사흘째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흥군 영남면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었으며,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께 집을 나선 뒤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에 A씨 집을 찾아온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마을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A씨가 마을 뒷산인 우미산 쪽으로 향한 것까지 확인했으나, 그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해경은 헬기과 수색견, 드론, 구조정 등을 투입해 우미산과 인근 바다 등을 수색 중이다. 마을 주민들과 자율방범대, 면사무소 직원, 의용소방대 등도 실종자 찾기에 동참했다.

A씨는 키 160cm에 짧은 파마머리이며 실종 당시 자주색 모자를 쓰고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3일 동안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웠던 지라 A씨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누구든지 A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본 사람은 경찰로 즉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인사 교류냐... 자체 승진이나

### 광주시-남구 부구청장 승진 예정자 놓고 협약 해석 엇갈리며 갈등

광주시와 광주시 남구가 남구 부구청장(3급) 승진 예정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 및 5개 자치구가 지난 2018년 맺은 ‘인사교류 협약’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다.

광주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구청이 특정 인의 승진을 위해 인사 일정을 미루면서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했다”며 “광주시와 4개 자치구의 인사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 상반기 간부급 인사를 1월 1일자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남구와 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남구청에 1대 1 교류를 요청하고 4급 공무원 한 명을 광주시로 전입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인사교류 협약에 따라 부구청장 직위의 인사를 “교류가 원칙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이와는 다른 입장이다. 협약에 따르면 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하면 자치구는 ‘자체 승진’을 단행하거나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현 남구 부구청장은 내년 인사 일정에 맞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라 남구는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남구는 4급 공무원 1명을 승진시켜 내년 1월 17일자로 신임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며 광주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또 협약서가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이 남구의 설명이다.

부구청장직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광산구는 광주시와 교류를 하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때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맺은 협약이 인사교류협약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남구 간 3급 인사 협의와 관련해 광주시가 2023년 상반기 6급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만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면서 “3급 고위직 인사 협의 결과가 광주시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구 하위직 직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이며 갑질이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복구작업 나선 31사단 장병들 육군 제31사단 장병들이 27일 담양군 담양읍 강령리에서 폭설로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폭설 뒤 ‘블랙아이스’ 위험... 곳곳 사고 속출

폭설로 인해 쌓인 눈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면서 ‘블랙아이스’(Black Ice)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광주경찰과 광주소방 등에 따르면 오전 8

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문흥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3대가 연속으로 추돌했다.

빙판길로 인한 갑작스런 교통체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첫 사고가 발생했고, 뒤따라 오던 승용차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전 8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징봉

터널 입구에서도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이 사고들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출근길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터널 입구쪽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 벽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피하려던 뒤 차가 1차선으로 급히 끼어들면서 연속 추돌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당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